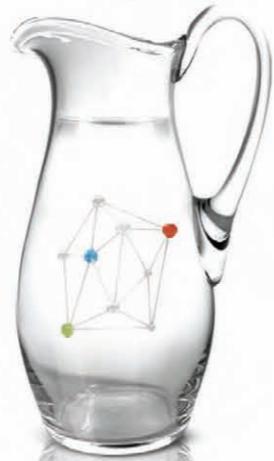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독자 효소 기술
저칼로리 기능성 당류로,
당신의 삶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제34호 목차 －

원래 선비 原士.....	2
연암 박지원	
우리는 경이로움에 가슴을 떨며 우주를 품고 사는 존재다.....	4
하서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혼맥의 관계망과 호남학술의 부상	5
김경호(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고봉 기대승, 낙향하여 낙암樂庵에서 진실한 공부를 꿈꾸다	12
우리는 조광조의 개혁정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백승종(한국기술교육대 겸임 교수)	14
죽산이 추진하고 인촌이 도운 농지개혁, 우리 사회의 평등과 번영 이끌다	
－ 죽산 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주대환 파워인터뷰	17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告由文.....	21
필암서원·산양회 소식	27

－ 알림 －

1. 방명록에 새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 강연회나 필암서원 춘추향제에 나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는 3만 원이며, 연회비는 4만 원입니다.

·전화로 신규 가입을 신청하실 경우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01-0093-8931-91)로 입회비 3만 원을 입금하시고 김재수(010-2705-6395)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⑦ 현직 또는 경력

원래 선비 原士

연암 박지원

무릇 선비士란 아래로 농공農工과 같은 부류에 속하나, 위로는 왕공王公과 벗이 된다. 지위로 말하면 농공과 다를 바 없지만, 덕으로 말하면 왕공이 평소 섬기는 존재다. 선비 한 사람이 글을 읽으면 그 혜택이 사해四海에 미치고 그 공은 만세에 남는다. 『주역』에 이르기를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온 천하가 빛나고 밝다.”/見龍在田 天下文明/고 했으니, 이는 글을 읽는 선비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는 원래 선비 原士이다. 원래 선비라는 것은 생민生民의 근본을 두고 한 말이다. 그의 작위爵位는 천자이지만 그의 신원身元은 선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위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며 신원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지위에는 귀천이 있으며 선비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위가 선비에게 더해지는 것이지, 선비가 변화하여 어떤 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를 사대부士大夫라 하는 것은 높여서 부른 이름이요, 군자를 사군자士君子라 하

는 것은 어질게 여겨서 부른 이름이다. 또 군졸을 士라 하는 것은 많음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士라는 점을 밝힌 것이요, 법을 집행하는 옥관獄官을 士라 하는 것은 홀로임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천하에 공정함을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공정한 말을 사론士論이라 이르고, 당세의 제일류를 사류士流라 이르고, 四海에서 의로운 명성을 얻도록 고무하는 것을 사기士氣라 이르고, 군자가 죄 없이 죽는 것을 사화士禍라 이르고, 학문과 도를 강론하는 곳을 사림士林이라 이른다.

송광평宋廣平이 연공燕公더러 이르기를 “만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이 일에 달려 있다.” 했으니, 어찌 천하의 말이 아니겠는가? 환관이나 궁첩宮妾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어찌 당세의 일류가 아니겠는가? 노중련魯仲連이 동해東海에 몸을 던지려고 하자 진秦나라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으니, 어찌 사해에서 의로운 명성을 얻도록 고무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어진 사람이 죽어가

고 온 나라가 병들었네.”라고 했으니, 이 어찌 군자가 죄 없이 죽는 것을 애석히 여긴 것이 아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文王이 이들 덕분에 편안하셨네.”라고 했으니, 학문과 도를 강론하지 않고서야 능히 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 무릇 선비란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天子가 태학太學을 순시할 때 삼노三老와 오경五更의 자리를 마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음식을 대접한 것은 효孝를 천하에 확대하는 것이요, 천자의 원자元子와 적자適子が 태학에 입학하여 나이에 따른 질서를 지킨 것은 공손함悌를 천하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효제孝悌란 선비의 근원統이요, 선비란 인간의 근원이며, 본디 아雅는 온갖 행실의 근원이니, 천자도 오히려 그 본디를 밝히거든 하물며 소위素位의 선비(평소 처지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선비)이라.

아아 요순堯舜은 아마도 효제孝悌를 실천한 본디 선비雅士요 공맹孔孟은 아마도 옛날에 글을 잘 읽은 분인저! 누군들 선비가 아

니리요마는, 능히 본디雅를 행하는 자는 적고, 누군들 글을 읽지 않으리요마는 능히 잘 읽는 자는 적다. 이른바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소리 내어 읽기를 잘한다는 것도 아니요, 구두를 잘 뎀다는 것도 아니며, 그 뜻을 잘 풀이한다는 것도 아니고, 답론을 잘한다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효제충신을 갖춘 사람이 있을 지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모두 사사로운 지혜로 천착穿鑿한 것이요, 아무리 권략權略과 경륜經綸의 술術이 있다 할지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모두가 주먹구구로 맞힌 것이니, 내가 말한 본디 선비는 아니다. 내가 말한 본디 선비란 뜻은 어린애와 같고 모습은 처녀와 같으며 일 년 내내 문을 닫고 글을 읽는 사람을 말한다.

참으로 고아古雅하도다! 증자曾子의 독서여! 해진 신발을 벗어던지고 상송商頌을 노래하니 그 소리가 천하에 가득하여 마치 종이나 경쇠에서 울려나오는 것과 같았도다.

- 박종채 편 『연암집』 10권 별집에서 인용함
(편집자 김재수)

우리는 경이로움에 가슴을 떨며 우주를 품고 사는 존재다

아마 우리의 운명은 사물의 내면을 여행하고자 하는 갈망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우주의 에너지를 깊이 들이마시면 우리는 우주와 동화된 인간이 된다. 별이나 바다처럼 우주의 본질에 자연스럽게 다가선 인간의 모습이 된다.

이러한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끌 안내자를 찾고 있다. 무엇보다 하늘에는 별이 있다. 우리는 밤하늘의 무한한 빛으로 별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다. 심연의 밤에 별은 길을 찾아주는 보증수표다. 별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경이로 이끈다. 경이로움의 감각은 완전한 인간존재로 나아가는 미래로의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안내자다.

경이로움은 우주가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통로다. 별을 생각해보라. 별은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에 빛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출현했다.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특별한 점은 별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놀라움은 예술과 과학을 고무시켰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별

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이로움의 세계에 거주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별의 자손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고대 신화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느꼈던 사실이고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커다랗게 연결되어 가족을 형성하므로 '모두 나의 친족'이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이로움은 단지 또 하나의 감정이 아니다. 경이로움은 우주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경이로움은 익은 과일의 단맛을 음미하고 비통한 고뇌를 견디거나 존재의 장엄함에 환호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길목이다.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꿰뚫고 일깨운다. 아무리 작더라도 경이의 순간을 경험하면 원시의 에너지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경이로움 속에 가슴을 떨며 우주를 품고 사는 존재다. 우리는 이 경이로움을 따라가면서 우주의 이야기를 발견해 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 브라이언 토머스 스윌, 메리 에블린 터커 저,
『우주 속으로 걷다』, 내인생의 책, 155~157쪽.

하서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혼맥의 관계망과 호남학술의 부상

김경호(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1.

김인후金麟厚(河西, 1510~1560, 본관蔚山)와 혼맥으로 연결되는 가계는 여섯 곳이다. 이 가계는 많은 방계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인후는 여흥윤씨驪興尹氏 사이에서 2남 4녀를 두었다.¹⁾

큰아들 김종룡金從龍은 태인泰仁의 이항李恒(一齋, 1499~1576, 본관星州)에게 사위로 보내고 그 딸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김인후의 둘째 아들 김종호金從虎는 진벽晉璧의 딸과 혼인하여 인척을 형성한다. 김인후의 혼맥은 그의 손자를 통해서도 확대된다. 김종호金從虎의 아들인 손자 김남중金南重을 통해 행주기씨幸州奇氏 기대승奇大升(高峯, 1527~1572)의 딸을 손자며느리로 맞는다.

김인후는 세 딸의 혼인을 통해서도 향촌의 명사들과 혼맥을 형성한다. 조림趙琳의 아들이자 자신의 문인이었던 남원南原 출신의 조희문趙希文(月溪, 1524~1578, 본관咸

安)을 사위로 맞아 자신의 학문을 전수한다. 그리고 담양潭陽 소쇄원의 주인인 양산보梁山甫(瀟灑, 1503~1557, 본관濟州)의 아들 양자징梁子徵(鼓巖, 1523~1594)을 사위로 삼아서는 학술과 세상의 인정을 토론한다.

부성명	본관	자녀	김인후의 가계
李恒	星州	딸	金從龍(長男)
晉璧	南原	딸	金從虎(次男)
趙琳	咸安	趙希文, 府使	長女
梁山甫	濟州	梁子澄, 縣監	次女
柳希春	善山	柳景濂, 察訪	三女
奇大升	幸州	딸	孫子, 金南重(김종호의 아들)

김인후와 혼맥을 맺고 있는 호남의 명유 가운데 비교적 연장자에 속하는 인물이 이항이다. 이항은 한성에서 태어났지만 태인泰仁으로 이주하여 살며 김인후를 비롯한 노수신盧守愼(蘇齋, 1515~1590, 본관光州), 기대승 등 지역의 명사들과 교류하고 후학을 양성한다.

이항은 박영朴英(松堂, 1471~1540, 본관密陽)에게 배웠고 조식曹植(南冥, 1501~157

1) 양자징과 혼인한 둘째 딸과 막내딸은 夭死한다.

2, 본관 昌寧), 성운成運(大谷, 1497~1579)과는 막역한 사이였다. 의병장이기도 했던 김천일金千鎰(健齋, 1537~1593, 본관 彦陽)과 기대승의 사돈이 된 김점金堦를 제자로 두었다.

김인후보다 세 살 아래인 유희춘은 해남 출신으로 담양에 거주하였다. 그는 종성과 은진에서의 19년간 유배 기간이 말해 주듯이 정치적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유희춘은 김종직-최부 계열로 이어지는 가학의 전승 속에 김인후와 함께 김안국金安國(慕齋, 1478~1543, 본관 義城), 최산두崔山斗(新齋, 1483~1536, 본관 光陽) 학맥으로 연결된다. 그는 서경덕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했던 허엽許曄(草堂, 1517~1580, 본관 陽川)의 아들인 허성許箴(岳麓, 1548~1612), 허봉許篈(荷谷, 1551~1588)²⁾을 제자로 두었다.³⁾ 허엽은 유희춘과 김안국 문하에도 있었다.

기묘사화로 인해 부친 기진奇進(勿齋, 1487~1555, 본관 幸州)이 광주로 이주하면서 태어난 기대승은 특별한 사승 관계없이 가학을 통해 학문을 익혔다.⁴⁾ 정운룡鄭雲龍

2) 허봉은 기대승의 사후 사관으로 있으면서 경연에서 했던 말을 뽑아 『נס사록』 2권을 만드는 인물이다. 『高峯集』附錄 1卷, 『謚狀』(李植 撰).

3) 『岳麓集』, 『墓碣銘』(金世濂 撰). “少師柳眉巖.”

4) 기대승이 이황을 ‘선생’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스승과 제자’로 보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다. 그러나 기대승이 이황을 사사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霞谷, 1542~1593, 본관 河東), 최경희崔慶會(日休堂, 1532~1593, 본관 海州) 등이 그의 문하에서 배우고 정철도 그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김인후의 제자로는 만사위이자 문하생이었던 조희문이 있다. 둘째 사위인 양자징도 그의 제자였고, 기효간奇孝謙(錦江, 1530~1593, 본관 幸州), 변성온卞成溫(壺巖, ?~?, 본관 草溪) 등도 김인후에게 배웠다.

김인후-이항-유희춘-기대승으로 이어지는 혼맥은 호남의 이름을 당대에 전국적인 ‘별칭’으로 각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혼맥의 관계망”은 학술의 파급력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유학사의 지평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⁵⁾

16세기 호남유학의 흥기와 호남의 도학이 갖는 학술사적 의미를 논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김인후의 “천명도”

필요성을 제기한다.

5) 유희춘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유희춘은 조선유학의 학술적 토대를 다지는 기초 작업을 선구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그가 수행했던 유교학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학술적 노력, 특히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교정하고 『詩書釋義』를 총괄했던 것은 유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술적 작업이다. 이러한 일은 유가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술 일반에 대한 조예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續蒙求』를 비롯하여 『歷代要錄』, 『續諱辨』, 『川海錄』, 『獻芹錄』, 『朱子語類箋解』, 『玩心圖』 등의 저술도 새로운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에 관한 견해와 함께 기대승의 『주자문록』이다. 기대승의 『주자문록』 편정에 사용되었던 『주자대전』의 판본이 무엇이었고, 이것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 점이 확인되어야 당시 호남유학의 『주자대전』에 대한 이해를 살필 수 있고, 또한 기대승의 주자학에 대한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승은 당대 조선에서 『주자대전』을 완독했던 첫 세대에 속했다. 그는 『주자대전』을 통해 주자학을 통독하였고, 그 결과 주자의 학술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학식을 쌓았다. 그런 바탕에서 김인후, 이항, 정지운, 이황, 노수신 등과 태극음양, 인심도심, 곤지기, 사단칠정에 대한 학술토론이 가능했다.

기대승의 『주자문록』은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규모가 달랐다. 『주자문록』 편정 작업에는 홍주송씨 가문에 속한 송정황宋庭篁(1532~1557)의 기여⁶⁾와 광산김씨 가문의 환벽정環碧亭 주인 김윤제金允悌(沙村, 1501~1572, 본관 光山)의 지원이 큰 몫을 하였다. 김윤제나 송정황도 훈맥과 학술의 관계망에서 김인후와 연결되어 있었다.

김윤제는 나주목사를 역임하면서 『주자문록』의 출판을 지원했는데, 그의 종질從姪이 서하당 김성원이고 외손녀 사위가 정철

이다. 의병장 김덕령과 그의 아우 김덕보는 김윤제의 종손이다. 김인후의 문인이기도 했던 송정황은 김윤제의 조카사위다. 송정황의 아들이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송제민宋濟民(海狂, 1549~1602)이다. 이처럼 기대승의 『주자문록』 편정과 간행은 호남의 유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었던 광산김씨 가문과 홍주송씨 가문을 비롯하여 학술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울산김씨 김인후, 선산유씨 유희춘 등 지역의 공동체가 조력한 셈이다.

2.

호남유학에서 학술논쟁의 주제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항과 기대승의 태극음양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김안국과 김정국 형제에게 배웠던 정지운鄭之雲(秋巒, 1509~1561)의 ‘천명도설’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천명도설’에 이어서 ‘사단칠정론’의 문제가 토론된다. 그리고 이연경李延慶(灘叟, 1484~1548, 본관 慶州)의 사위이자 문인이었던 노수신과의 인심도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다.

이와 같은 논의 순서는 우연히 제기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 단계 자체가 성리학의 공부의 단계이기도 하였다. 소학적 실천을 통해 신유학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몸 공부 가 수행된 이후에, 성리학의 형이상학에 대

6) 『朱子文錄』續集, 「卷後」(宋庭篁).

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태극음양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갖추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사단칠정을 다루는 심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정지운의 천명도설은 추상적인 이론을 도해한 것이지만 논리 정연한 이론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적 단계에 속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심도심의 문제와 연계되는 수양의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 논의의 순서이다. 이렇게 해서 호남의 학술토론은 전국 단위로 확산되었다.⁷⁾

태극음양의 문제에 있어서 기대승은 이항과의 토론을 통해서 성리학의 리학적 측면과 기학적 측면이 혼재하던 당대의 학술을 정주성리학적 방향으로 정리를 시도하였다. 태극음양의 통합적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 이항의 입장이다. 이것은 기대승이나 김인후가 보았을 때 리기일물理氣一物의 관점이다. 따라서 태극음양으로 논의되고 있는 리와 기가 비록 불상리不相離하면서 불상잡不相雜 하지만, 기대승과 김인후는 ‘태극은 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⁸⁾

7) 호남유학의 전개과정에서 성리학의 보편이론에 대한 지역적 토론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는 지성사의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8) 태극음양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경호, 「일재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교류와 논쟁에 대한 재독해- 1560년대를 전후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 『울곡사상연구』 Vol.29, 울곡연

그러나 리기의 짝 개념⁹⁾을 심성 개념과 연동하여 토론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이항은 사단을 리로, 칠정을 기로 분개해서 보려는 관점인데, 기대승은 8여 년을 끌면서 반대한다.

기대승은 이렇게 주장한다: “희·노·애·락·측은·수오·사양·시비의 리가 혼연히 속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본체의 본질이지만, 혹 기품이나 물욕의 구애와 가림을 받게 되면 리의 본체는 본래 그대로 여전해도 그 발현된 것에는 혼昏·명明·진眞·망妄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품과 물욕의 얽매임을 다 제거한다면, 그 본체의 유행이 어찌 해가 땅을 두루 밝게 비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¹⁰⁾

이항은 희노애락을 사단과 분리하여 보려고 한다. 이에 비하여 기대승은 희노애락이 “사단과 분리되지 않은 연속된 감정”이라고 보는 것이다.¹¹⁾ 결국 기대승은 본체와 유행이라는 것이 일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

구원, 2014.

9) 기대승과 이항, 이이를 비롯한 조선성리학의 리기 개념에 대한 흐름과 사유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경호, 『동양적 사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리와 기의 조화와 충돌 그리고 탈출』, 파주: 글항아리, 2012. 189~274쪽.

10) 『高峯集』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上 卷1, 『高峯答退溪論四端七情書』.

11) 김경호, 「빈락에 대한 성찰-고봉과 퇴계의 경우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Vol.3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27~30쪽 참조.

어서 사단과 칠정을 “하나의 근본”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3.

완결되지 않은 학적 쟁점의 분기는 후속하는 세대들의 또 다른 논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극음양에 관한 논의는 호남유학의 토대에서 서경덕의 이론을 계승¹²⁾하고 있는 박순(朴淳, 1523~1589, 본관 忠州)에 의해 이이와의 논변으로 확대된다.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에 대한 미진한 논의는 성혼(成渾, 1535~1598, 본관 昌寧)과 이이에 의해서 재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들의 학술적 토론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혼과 이이가 호남유학의 학술 경향과 미묘하게 닿아 있다는 점이다.

성혼은 16세기 전반에 ‘은일적 도학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의 아들이다. 성수침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사문인 호남출신의 양팽손, 양산보 등과 교류하였고, 송순, 김인후 등 당대의 호남 명유들과도 친교를 나누었다. 그

러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성혼은 1551년에 신여량(申汝樑, 1515~1580, 본관 高靈)의 딸과 순천에서 혼인하면서¹³⁾ 호남지역의 인사들의 주목을 받는다.

부친 성수침의 학문적 인맥에 더하여 혼맥을 통해 성혼은 호남지역의 동년배인 정철뿐만 아니라 젊은 사류층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혼의 문인 가운데 호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된다. 양자징의 아들인 양천경(梁千頃, 양천회 梁千會, 양천운 梁千運(瀛洲, 1568~637)¹⁴⁾을 비롯하여 안방준(安邦俊(隱峰, 1573~1654, 본관 竹山) 등 호남유생들이 성혼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성혼과 교류하였던 호남의 인사들은 이 과정에서 이이와도 교류하게 된다. 광주 서창 회산 출신의 박광옥(朴光玉(懷齋, 1526~1593)도 이이와 교류한다.

보성의 안방준은 11세에 퇴계문인이었던 박광전(朴光前(竹川, 1526~1597)에게 수학하고, 14세에는 자형인 박종정(朴宗挺(蘭溪, 1555~1597)에게 배우다가 19세(1591)에 파산(파주)으로 가서 성혼의 문인이 된다.¹⁵⁾

12) 서경덕의 학맥을 잇고 있는 호남유학자 중 한 사람이 나주 출신의 정개청이다. 그의 문하에는 호남의 유력한 가문 출신들의 자제들이 대거 운집하여 문생이 4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여립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체포(1589)되어 유배지인 함경도 경원의 아산보에서 사망(1591)한다.

13) 『牛溪集』, 「年譜」, 〈嘉靖 三十年辛亥〉(1551, 17세).

“七月, 聘高靈申氏于順川郡, 先生外舅申公汝樑, 時爲順川郡守.”

14) 『陶谷集』 卷16, 「司憲府監察梁公墓誌銘」, “監察公與其兄千頃, 千會, 出入牛溪先生之門, 少見賞於重峰趙文烈公, 清陰金正公亦與交厚.”

15) 『隱峯全書』 附錄上, 「年譜」, “先生十一歲, 就學于竹川朴先生, 竹川諱光前, 字顯哉, 退溪門人… 先生

게다가 안방준의 경우에는 아들 안후지(安厚之)가 성혼의 아들인 성문준(成文濬) (1559~1626)의 차녀와 혼인하여 사돈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호남의 보성을 중심으로 우계-율곡학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호남유학의 핵심축을 이루었던 ‘김인후-이항-기대승’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태극음양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리기론적 사유와 천명도의 문제, 사단칠정과 인심과 도심의 문제들은 후속세대인 ‘박순-성혼-이이’의 성리 철학적 논제로 심화되었다. 호남유학의 철학적 사유가 이 지역의 학자들과 혼맥을 통한 학술적-인맥적 친연성을 갖고 있는 성혼과 이이 문하의 우율학맥으로 경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4.

이 글을 구상하면서 필자가 유념한 것은 16세기 호남유학이 이전 시기의 유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 그러한 동인과 힘은 무엇에서 비롯하였을까 하는 물음이었다. 이 점을 해명하는 것은 호남유학의 16세기적 특이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16세기 조선유학의 특징을 가시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6세기 호남유학의 수준은 곧 당대 조선유학의 수준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가는 단서를 필자는 혼인의 관계망에서 찾았다. ‘혼인’이라는 관계의 재구성양식은 이질적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동기화하면서 연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속의 삶을 변형하고 이전과는 다른 사유를 받아하고 확장한다. 따라서 나는 혼인의 역동적인 측면을 학적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유함으로써 16세기 호남유학의 특질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16세기 전반기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혼맥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가문의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인후 자손들의 혼인은 동족(同族) 집단의 일원이었던 개인이 이종족(異宗族) 집단에 포함됨으로써 종족간의 지속 가능한 접촉의 계기성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맥과 학적인 관계망 또한 구축되었다.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의 절차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16세기 호남의 혼인을 통한 인적 교류는 ‘사회적 유동성’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혼인의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성의 혼성과정이 새로운 16세기 호남유학의 집단적 응축과 연대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였다고

十四歲。蘭溪朴先生受學，蘭溪諱宗挺，字應善，乃先生姊夫也…先生十九歲。四月，往坡山，行贄禮于文簡公牛溪成先生。”

판단한다. 김인후와 연관되는 가문의 구성원과 그 후손들의 집단적이면서도 공감적인 사유의 지점에는 특별히 16세기 호남유학에서 강조되었던 ‘소학적 실천’의 내면화와 ‘효행’의 일상성이 자리하고 있다. 소학과 효는 16세기 호남유학의 공감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끝으로 16세기 혼인을 통한 호남의 가족 구성 관계망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독한다면, 그것은 익숙한 것들에 의한 자가 복제의 유혹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혼인에 의해 형성된 인적 관계망이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확장될 수 있었던 힘은, 다름의 공존 방식에 대한 재발견에서 비롯한다. 다시 말하면, 호남유학이 16세기 중반

에 부상할 수 있었던 여건은 혼맥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우수한 학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있었고, 이들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학술정보의 교환과 활발한 토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낮선 것에 대한 긴장과 이완을 통해 상호 존중과 공존의 지혜를 구축해 나갔던 16세기 호남유학은 이전의 유학과 다른 지평에 있음을 보여준다. 호남유학의 부상과 명멸도 다름에 대한 감성적 사유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은 성찰적 과제다.

— 출처, 김경호, 『감성유학의 지평』,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45~53쪽.

맹자 孟子의 사천 事天 사상

자기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대면할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통찰한 사람은 하늘의 뜻과 대면할 것이다. 네 마음을 확보하고 存心 네 본성을 기르는 養性 것이 하늘을 섬기는 事天 것이다.

언제 죽을지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닦을 뿐, 다른 것을 돌아보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운명을 사랑하는 立命 법이다.

孟子曰 盡其心者知其性也 知其性即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

— 한형조 독해 『성학십도, 자기 구원의 가이드맵』 573쪽에서 뽑음.

고봉 기대승, 낙향하여 낙암樂庵에서 진실한 공부를 꿈꾸다

기대승은 인종의 위패를 연은전에 모시려는 대신들의 견해를 비판한다. 그것은 인정仁情에 어긋나고 의리義理상 정당하지도 않으며, 게다가 예법禮法에 합당하지도 않음을 들어 반대한다. 대신들의 주장은 예법을 참고하여 제안한 것이지만 그것은 엄밀한 전거도 없이 편의성을 따라 제안된 것이었다.

반면 기대승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전거를 『주자가례』나 『주자대전』과 같은 주자학에서 찾았고, 그러한 전거를 통해 상식적 수준의 견해를 논박해 나간다. 기대승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이치에 합당함’과 ‘의리의 정당성’에서 찾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자학에 정통하지 못한 대신들의 입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기대승에 대한 질시는 심해져서 그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져만 가게 된다. 인종을 문소전에 부묘하는 문제는 단순히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 지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대 왕위와 현재 통치자의 계통

과 관련한 정통성의 문제이고, 그것은 또한 국가의 전례와 제도, 예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기대승은 자신의 철학과 삶의 과정으로서 철학함을 통해 도의와 이치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제안하고, 그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현실의 운용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종의 위패를 문소전에 모시는 문제에서 비롯한 의리의 정당함과 이치의 합당에 대한 논란은 현실 운영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게 되면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난항을 계속한다. 기대승은 이 과정에서 더욱 좌절하게 되고 결국 1570년 2월에 낙향하고 만다.

낙향한 기대승은 비로소 오래된 꿈을 찾아간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진실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대승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적인 덕성을 닦고 천명을 기다리는 공부修身以俟에는 전혀 부족한 듯하다”고 고백한다. 그의 걱정적인 성향은 다른 무엇보다 ‘문제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에게는 ‘조화의 관계성’ 영역이 부족하였다.

기대승이 비록 당대 최고의 통유通儒로

평가되고, 의리의 강직함으로 소기묘小己卯로 불린다 해도 ‘마음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대승도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기대승은 자신의 문제점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삶으로서의 철학적 기준’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한다. 기대승은 삶의 기준을 도道로 확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 도의 내용은 유가철학이 담고 있는 삶의 진실성, 그 자체이다.

그래서 기대승은 집 근처에 초당을 짓고 진실한 공부를 시작한다. 그는 초당의 이름을 낙암樂庵이라고 짓는다. 1570년 5월에 완성된 낙암은 “가난을 마땅히 즐겁게 여겨야 한다(빈당가락貧當可樂)”고 했던 이황의 편지글에서 취한 것이다. 기대승이 그토록 기대했던 ‘오래된 꿈’을 찾아가는 모습은 멀리 안동의 이황에게도 기쁨이었다. 이황은 학문에 침잠하게 된 기대승의 낙암 풍경을 축하하고 그곳의 풍광을 직접 보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기대승이 자신의 학문하는 장소를 낙암으로 명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기대승은 경세지사經世之士가 아닌 자수自守의 학문하는 자로 돌아온 것이다. 벼슬을 하지 않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음에도 ‘삶의 족함’을 알기에 세속적인 힘겨움을 넘어선다. 삶의 자족이란 단순히 족함을 아는知足 심리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 인仁과 의義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기대승은 낙樂의 본질, 곧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대승은 도리가 너무도 멀리 있는 세상에서 도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로써 ‘삶의 진정성’을 자신의 철학적 탐구이자 실천영역으로 설정한다. 바로 삶의 본령인 진락眞樂을 찾아가는 것이다.

- 김경호, 『감성의 유학』, 전남대학교출판부, 180~182쪽.

우리는 조광조의 개혁정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다시 태어날 조광조를 위하여

백승중(한국기술교육대 겸임 교수)

조광조가 조정에 머문 것은 햇수로 4년에 불과했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조광조와 그의 동료들은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다. <여씨향약>을 전국에 시행했고, 『소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소격서를 폐지하였고, 조정의 기강을 세웠다. 또한 현량과를 시행하여 과거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하였고, '위훈삭제'를 단행해 의리와 염치의 중요성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광조가 미래의 군사君師이기를 소망했던 중종은, 하루아침에 군신의 의리를 무너뜨리고 가혹한 처벌로 대답했다. 이상주의자 조광조와 현실주의자 중종의 연합은 막을 내렸다.

후세는 그가 학문도 부족했고 정치적 경륜도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격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고 평했다. 그것이 과연 학식이나 연륜 또는 경륜의 문제였을까. 그럼 이황의 학식과 연륜이면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성사될 수 있었을까. 노년의 송시열이나 윤증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 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단적으로

조광조의 좌절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에게는 권력의 기반이 취약했다. 그는 연약한 중종의 왕권에 의지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조광조의 개혁정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와 그의 시대가 21세기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본다.

첫째, <여씨향약>의 보급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형세가 악화되어 조광조가 실각할 때의 풍경이 문득 떠오른다. 그때 수백을 헤아리는 '향약인'들이 몰려와, 개혁파를 두둔하였다. 그들은 형리刑吏가 조광조 등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이 무명의 선비와 백성들은 왜, 일신의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조광조를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일까.

조광조와 그의 동료들이 '향약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질서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참된 지방자치였고, 여론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였다.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만 지방자치제를

시행할 뿐이다. 지금의 자치제는 중앙정부의 권력과 재정적 도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기생적 상태이다. 조광조의 향약운동은 성리학적 도덕에 기초하여 향촌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도 500년 전의 향약운동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 위주의 과거제도에서 벗어나, 조광조 등이 '현량과'라는 새로운 관리 채용 방식을 시험한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과거제도는 폐지된 지 어언 100년도 지났으나,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실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시험에 의지해서 인재를 뽑고 있다.

세상사는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복잡다단해졌다. 인재상에도 큰 변화가 왔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필기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우리도 현량과 정신으로 되돌아가면 어떠할까? 인재를 기르는 방법이나 선발하는 방법에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조광조가 끝까지 목숨을 걸었던 '도덕정치'도 감동적이었다. 그의 도덕심은 닥쳐오는 억울한 죽음마저도 피하지 않게 하였다. 조광조는 성리학의 순교자였고, 그래서 길이 후세의 모범이 되었다.

5백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세상은 그때와 같지 않다. 도덕이란 말만 들어도 시민

들은 돌아서서 비웃을 지경이다. 그러나 도덕이 실종된 정치란 무엇인가. 결국 소수 기득권층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불의한 세상으로 가자는 것인가? 우리는 정치와 도덕은 그 본령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분열시켜도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가 횡행한다. 원칙을 저버린 극단적인 대립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조광조와 그의 동료들이 그랬듯, 파당적 이익을 앞세우느라 사욕에 치우치지 말고 공익을 우선으로 삼으면 안 되겠는지 묻고 싶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일찍이 갈파했다. 현대의 학교에서는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오직 지배집단의 가치와 문화만을 일반문화로 여겨 모든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문화자본'이라는 것도 실상은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대의 교육은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소수 특권층이 대를 이어 '문화자본'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돕는 수단이 된 것이다. 이는 경제자본의 상속보다 더 악랄한 상속이요, 대다수 시민을 좌절로 이끄는 허무한 일이다.

우리는 뚜렷이 기억한다. 조광조는 경연

석상에서 경상도 노비 여형의 학문적 성취를 칭찬하며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였다. 인간의 성취란 세대 간의 세습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자가 『논어』의 첫머리에서 하필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悅乎”를 외쳤는지 우리는 깊이 헤아려보았으면 한다. 그가 추구한 군자의

길은 개인의 노력과 성찰의 결과였지, 부자나 귀족의 아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세습이 결코 아니었다. 교육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19년에 강연회를 열었는데, 이 글은 거기서 뽑아 온 것이다.(편집자 김재수)



인격 성숙의 새로운 지평 - 율곡의 인간론

김경호 지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기완성의 길에 대한 탐구

이이의 철학사상은 단지 리기·심성 측면의 사변철학에 머물지만은 않는다. 이이는 리기·심성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심성수양의 도덕적 행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사변을 통한 논리의 정립과 수

양을 통한 도덕 심성의 배양을 바탕으로 현실·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 진단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혁과 변화를 추구한다. 곧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일신하려는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이의 철학사상은 사변철학으로부터 사회철학적인 실천철학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이이 철학사상의 면모는 서경덕이나 이황의 사회적 변혁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기완성의 내향적인 심성수양에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일면이다.

정보와사람 354쪽 / 15,000원

죽산이 추진하고 인촌이 도운 농지개혁, 우리 사회의 평등과 번영 이끈다

— 죽산 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주대환 파워인터뷰

70년 전인 1949년 4월 27일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섯 자에 불과한 간결한 명칭의 이 법률로 유사 이래 자기 농토를 가져 본 적이 없던 한반도의 대다수 농민이 땅을 갖게 됐다. 이 법률 이전 자작농이 경작하는 농지는 전체의 35% 가량에 불과했으나 이후 92~95%가 자작농의 소유가 됐다.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남로당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이 법률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됐고,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유전자에는 ‘평등’의 가치가 강력하게 각인됐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6월 21일 다시 국회에서 가결돼 공포된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가장 큰 숙제였다. 이를 담당할 건 공산주의자였다가 광복 뒤 전향한 초대 농림부장관 죽산 조봉암(1898~1959)이다. 농지개혁법 통과 70주년을 맞아 주대환 죽산 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을 3일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났다.

농지개혁의 의미는…

“1950~1960년대 우리나라 토지 소유의 평등지수는 세계 1위였다. 그만큼 세계사로 봐도 가장 철저한 농지개혁이 이뤄졌다. 세계은행이 2003년 낸 정책보고서가 있다. 건국 초기 토지 분배 상태가 평등할수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았다. 대토지 소유를 해체하지 못한 남미 국가들, 필리핀 등은 풍부한 자원에도 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한국은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해 심각한 불균형 성장을 해 왔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유전자다.”

농지개혁이 어째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나

“평준화로 인해 교육을 받고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게 됐다. 수백 년 만에 자신의 땅을 가진 농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했다. 자립의

의지를 물려받은 자영농의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현대적 학문과 과학기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대농장주의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대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 경제의 발전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주 부회장은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못 박고 출발했다”고 말했다. 농지개혁법 제정 이전 이미 건국헌법(제헌헌법)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제86조)고 규정했다. 헌법 초안은 인촌 김성수 선생의 부탁을 받고 유진오 고려대 교수가 기초한 것이었다. 유진오는 농지개혁 등 4대 원칙을 포함한 초안을 인촌에게 건넸고, 설명을 들은 인촌은 전적으로 찬성했다. 유진오는 대지주인 인촌이 적극 찬성하자 사심 없는 그의 통찰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인촌은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 “농지개혁은 삶의 설계를 새로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민족의 도약의 기회이므로 이를 꼭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회장은 “대한민국은 농림부장관이었던 죽산 조봉암이 추진하고 인촌 김성수 선생이 도운 농지개혁이 성공하면서 유허 없이 평등한 나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농지개혁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제헌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정하

곳이 인촌의 사랑방이다. 유진오 교수는 인촌이 키운 사람이다. 최남선이 손병희 선생의 뜻을 받들어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처럼 젊은 유진오가 인촌의 뜻을 받들어 헌법을 기초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기초위원회 소속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절반이 인촌을 따르는 이들이었다. 한민당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호남의 대지주인 인촌이 농지개혁의 대세를 받아들이니, 다른 지주들도 꿈쩍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대인들이 농지개혁의 효과를 예상했을까

“남로당이나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는 사태를 막으려고 ‘예방혁명’을 종용하던 미국, 대세를 받아들인 한민당, 주요 실행자였던 이승만과 조봉암 그 누구도 농지개혁이 가져올 심대한 효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이 70년 뒤 영국과 프랑스에 견줄 만한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비해 한국의 농지개혁은 효과가 작았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농지개혁법은 농민에게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소출의 30%를 5년간 정부에 내면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 한 해 10석이 나는 땅이라면 매년 3석씩 5년간 내라는 거다. 일제강점기 한 해 5석씩 소작료를 내던 농민이 3석씩 5년 동안만 내면 내 땅이 된다는데 누가 포기하겠는가. 지주들에게는

국채를 주었는데 전쟁 중에 인플레이션으로 휴지조각이 됐다. 그래서 지주들이 쫓따 망했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집단농장을 만들면서 국유화했다.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주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전북 고창에서 ‘인촌 정신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인촌은 근대 한국인의 모범이고 전형”이라면서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인촌의 도움을 받았다” 말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을 꼽아 달라

“이승만 김성수 신익희 조봉암 조만식 등 5명이다. 이승만 김성수는 당연하고, 해공 신익희는 임정계에서 떨어져 나와 대한민국의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임정계 시각으로 보면 배신자겠지. 죽산도 조선공산당 입장에서는 배신자다. 둘 모두 미군정 정보당국에서 일주일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아마 미군정 당국이 세계정세나 미국이 가진 정보를 제공하면서 깊은 대화를 했던 거 같다. 죽산과 해공의 참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든든해졌다. 역사는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월남한 이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 선생은 포함돼야 한다.”

인촌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죽산을 공부하다가 인촌을 만나게 됐다.

인촌이 돌아가시기 직전 ‘죽산을 배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치적 유언 비슷한 말이다. 그런데 인촌 사후 죽산이 민주당 창당에서 배제되면서 진보당을 창당하고 고립돼, 끝내는 사법살인을 당했다. 인촌은 100년 전 조선 사람 가운데 실로 드물게도 근대인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 위정척사파류의 선비형 지식인이 아닌 코즈모폴리턴 세계시민이었고, 허세와는 거리가 먼 실용주의자였다. 모두가 비분강개하기만 할 때 인촌은 조용히 인재를 기르고 실질적인 일을 했다. 청년들에게는 유학비를 대서 일본이나 미국 영국에서 과학과 기술을 배워오라고 했다. 도산선생이 절규했다.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실력 없이 무슨 독립을 하나? 독립을 말로 하나?’ 도산의 절규에 가장 충실하게 답한 사람이 인촌이다.”

주 부회장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애썼던 이들의 노력을 온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산은 건국유공자 서훈을 못 받았는데...

“유족이 낸 서훈 신청을 국가보훈처가 3번이나 보류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광복 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약산 김원봉은 서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주 잘못된 얘기다. ‘건국’훈장이다. 독립운동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느냐도 평가해야 한다. 약산의 서훈은 통일이 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서훈 거부 이유는 무엇인가

“1941년 <매일신보>에 아주 작은 기사가 있다. 인천의 조봉암이 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거다. 실제로 냈는지는 알 수 없다. 매일신보는 지금 북한 노동신문이나 마찬가지로인 총독부 기관지다. 그런 신문의 기사를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죽산은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당 멤버다. 중국으로 가 독립운동을 했고,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1939년 나온다. 고문으로 손가락 7개를 잃었다. 출소한 뒤 인천의 후배들이 먹고살라고 죽산에게 왕겨를 취급하는 비강조합장 자리를 마련해 줬다. 죽산은 감옥살이를 하고 일제에 노출된 사람이다. 만약에 죽산이 강요에 못 이겨 헌금을 냈다고 치더라도, 죽산이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는 것은 조선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다. 광복 뒤에 반민특위에서도 죽산은 거론된 적이 없다. 일제강점 말기 광란의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들이 구성한 반민특위에서도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분들을 그런 문제로 모욕하는 건 어이가 없는 일이다.”

농지개혁에 비견될 만한 오늘날 시급한 개혁 과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와 연금개혁

이다. 똑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고용이 안정되고 대우가 좋으며 노조의 보호도 받는 좋은 소수와 전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일부 노동자층은 마치 소지주처럼 지대를 수취하는 듯한 입장이다. 반대로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은 과거 소작농과 같은 처지에 내몰려 있다. 이를 혁파해야 한다.”

- 조종엽 기자

주대환 부회장은 1954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마산중고교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부마항쟁 사건으로 여러 차례 투옥됐다. 1987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했고 1992년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2008년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1일부터 시민단체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 이 글은 2019년 4월 5일자 <동아일보>에서 가져왔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13대손인 인촌 김성수가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농지개혁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숨은 공로자라는 주대환 대담자의 참신한 주장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45쪽~73쪽 「농지개혁을 알아야 현대사가 보인다」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 필암서원 산양회 편집주간 겸 이사장 김재수 씀.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告由文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
2019년 8월 19일 북하면 증평리 하서선생
종가에 있는 부조묘인 文正廟에 고유를 하
고, 필암서원 祐東祠에 고유를 하였다. 우
동사에 올린 고유문을 본보에 게재한다.

維歲次己亥七月庚午朔 十九日戊子 後學 筆
巖書院長 朴秉濠 敢昭告于
文正公 河西金先生 伏以

天眷我東 挺出先生
하늘이 아들을 도와 빼어나게 선생이 태어나시
니
日月免晦 吾道復明
해와 달이 어둠을 면하고 우리 도가 다시 밝아졌
도다

偉哉節義 卓乎道德
절의는 위대하셨고 도덕은 탁절하셨도다.
百世可師 後學攸式
백세의 스승이시며 후학의 모범이 되셨도다.
倫綱扶植 炳如日星
윤강을 부식하시어 해와 별처럼 빛나셨고
天道先覺 允矣集成
천도를 먼저 깨달아 진실로 집대성하셨도다.
門徒獻誠 創設筆巖
문도들이 정성을 바쳐 필암서원을 창설하여

後進培養 春秋釋奠
후진을 배양하며 춘추로 석전을 올렸도다.
從祀文廟 疏請學國
從祀에 종사하고자 거국적으로 소청하니
健陵允許 聖廡配食
정조임금 윤허하여 성무에 배식하였도다.
敬虔俎豆 迄今半千
경건히 저두 올리며 지금까지 반천년 되었도다.
如山仰止 世世連綿
산처럼 우리르며 대대로 이어져 왔도다.
本院蒙薦 文化遺產
본원이 문화유산으로 천거됨을 입으니
國際機構 登載被揀
국제기구에서 등재하라는 간택을 입었도다.
證書受領 靈前奉獻
증서를 수령하여 영전에 바치게 되니
京鄉章甫 成就所願
경향각지의 장보들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도
다.
涓吉誕辰 謹具菲薄
탄신일로 날을 받아 삼가 비박을 갖추어서
虔告厥由 敬薦洞酌
삼가 그 사유를 아뢰오며 경건히 잔을 올리나이
다.
尚饗

- 전 문정공 도유사 김진웅 씀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 고유문

庚子年 8월 29일 後學 丁彩鎬

敢昭告于 文正公 河西先生日

우리 儒道가 동쪽 우리나라로 건너왔으니 그 연원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

웅장한 필암 마을에 엄숙한 사당과 서원이 있다오

하늘과 땅 사이에 두 사람이 있으니 仲尼 공자와 紫陽 주자라오

이 글귀는 누구의 말씀일가 湛齋 하서선생님의 말씀이지요.

선생께서 위대하게 출생하신 것은 하늘이 우리 동쪽나라를 도우심이라오.

이 여덟 글자로 작성한 글귀는 우암 宋子님의 지극히 공정한 말씀이라오.

영원한 세상에 큰 스승님이시기에 천만년 그리는 생각으로

봄가을 향사를 받드는 데 씩씩하고 깨끗한 선비들이라오.

위로 程朱學을 꿰뚫어 보셨고 아래로 이퇴계 이율곡을 일깨워 주셨다 했으니

이는 정조대왕의 말씀이시기에 사람들 모두 다 깜짝 놀랐다오.

선생님을 의지하려 했다는 것은 奇文憲공의 뜻이었고

맑은 물결에 연꽃이라는 것은 율곡 李石潭선생의 기록이라오.

己亥 1659년에 효종임금의 윤허를 받아 필암서원으로 宣額되었으며

己亥 2019년에 등재되어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함께했다오.

선생께서 남기신 얼은 산처럼 높고 물 흐름처럼 길기에

많은 세월 힘 쏟았으니 영원한 후세까지 영광 누리소서.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벌써 1주기를 맞았기에

본래 풍부한 계획을 세워 성대히 거행하도록 재정을 지출하려 했지만

마침내 역질로 인하여 축소되어 중요한 의식만 시행하기로 했다오.

삼가 술과 육포를 구비하였으니 오직 영령이시여 내려와 기뻐하소서.

吾道渡東 其源何見	雄矣筆巖 嚴而祠院
天地二人 仲尼紫陽	是誰之言 湛老所量
先生鍾出 天佑我東	於此八字 宋子至公

百世宗師 千秋慕戀	享祀春秋 彬濟士彥
上窺程朱 下啓退栗	正廟教言 人皆竦慄
幾依先生 奇文憲意	清水部蓉 李石潭誌
己亥蒙允 宣額筆巖	己亥載等 世產名咸
先生餘韻 山屹水長	多年瀉力 永世享光
年月如流 一週期迎	本立豊案 盛行財傾
竟因疫疾 縮施要儀	謹具酒脯 惟靈格怡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기 기념 송축사

姜奉求(장성향교 장의)

저 필암서원을 바라보니 후학들이 의식을 익히는 건물이요, 이 담장 문안으로 들어가니 하서선정 위패를 편안히 모시는 장소로세.

先正께서 일찍이 남기신 詩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 중간에 두 인물이 있으니 한 분은 공자 중니요 또 한 분은 주자 자양이라 하셨습니다.

正祖大王께서는 내려준 祭文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 두 분이라는 것은 文正公의 시구에 있으니 진실로 문정공께서는 百世의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

또 말씀하시기를 文成公 이율곡께서 말씀한 四端과 七情은 文正公께서 먼저 깨달으셨다네. 또 내리신 敎書에서 말씀하시기를 위로는 程子와 朱子가 밝히신 실마리를 꿰뚫어 보았고 아래로는 文純 이퇴계 文成 이율곡이 개발하는 공로를 일깨워 주었다고 하셨으니 이 敎書 20자는 임금님이 극찬한 말씀이다.

후세에 이 글을 읽는 자라면 뉘가 감히 숭배하지 않을 것인가.

宋子 우암께서 엮은 선생의 신도비 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여러 선생의 道

學 節義 文章에 있어 대개 品目の 차이가 있으며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고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은 이는 몇이 없었는데 하늘이 우리 동쪽나라를 도와 河西 김선생을 鍾生하여 거의 구비하셨다고 하겠다.

이에 앞서 거의 선생을 의지하려 했다는 것은 고봉 奇文憲公이 선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다는 것이며 맑은 물에 연꽃처럼 깨끗하였다는 것은 울곡 李文成公의 선생에 대한 느낌입니다.

높기만 한 河西선생의 위치는 사다리코 올라갈 수 없는 하늘과 같다는 것은 제봉 高忠烈公이 존모하는 마음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出處가 분명한 분이 없었는데 유독 湛齋선생이 있었다는 것은 송강 鄭文淸公이 더할 수 없이 높이 우러른다는 것입니다.

鳥川 정포은이 돌아가신 뒤 선생께서 태어나 우리나라 천년의 도학이 다시 밝았다는 것은 권석주가 도통의 분별을 밝힌 것이며 확고한 충절이 천고에 뛰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여가에 읊은 詩 솜씨는 이태백 두보와 같았다는 것은 김추답이 선생의 충절과 시율을 분명히 논평한 것입니다.

大賢의 文字는 大賢이 아니면 붓을 잡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李松柏堂이 선생의 신도비문을 요청하는 지극한 정성이며 손으로 파 꺾질을 벗겨내는 것은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려는 것이고 힘껏 선비들의 사기를 붙들어주고 모든 賢人들을 구원하였다

는 것은 朴梅軒公이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정밀하게 살펴본 참된 표언입니다.

아! 본 서원은 옛날 선조대왕 庚寅 1590년에 비로소 기산 아래 세워졌으며 그 뒤 효종임금 戊戌 1658년에 문수산 남쪽으로 옮겨 설립되었습니다.

至尊께 賜額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려 己亥 1659년에 允許가 내렸고 현종대왕 壬寅 1662년에 강당 남쪽에 宣額되었으며 정부에 사적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여 乙卯 1975년에 이름을 올렸고 민선자치 丙戌 2006년에 서원 전경을 정화하였습니다.

지난 己亥 2019년에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래 풍부한 계획을 세워 성대히 축전행사 진행하려 했는데 마침내 전염병으로 인하여 축소하여 중요한 의식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빛나고 빛나도다. 선생의 바람은 봄날에 화창한 기운이요, 선생의 도학은 가을날에 따뜻한 빛이로다.

감탄하고 감탄하도다. 선생을 배우는 선비들이여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한 잔 술에 노래 부르고 또 한 잔 술에 춤추며 꺽충거리고 다시 한 잔 술 마시고 서로 전송하며 잔치자리 끝내자구나.

2020년 10월 15일

경축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學松 宋泰鍾

筆巖書院幾多年
世界名聲慶祝全
清節堂中修志士
廓然樓上討眞賢
祐東廟肅斯文起
墨竹圖情節義連
儒學湖南總本產
先生思想後人傳

필암서원이 몇 년이나 되었는가
세계에서 이름나니 경축합니다
청절당에서는 지사들이 수신하고
확연루에서는 현사들이 토론하도다
엄숙한 우동묘 사문을 일으키고
정 깃든 묵죽도는 절의로 이어졌네
호남유학의 총 본산인 곳이니
선생의 사상을 후세에 전하세

靑潭 閔永順

儒林宿願幾過年
多士聞風遠近前
正祖書工經閣傑
仁王墨迹學堂賢
文章卓犖朱程繼
道德隆崇孔孟連
四境題詩登載祝
筆巖懿績萬方傳

유림들의 숙원이 몇 년이나 지났는가
다사들 소문 듣고 원근에서 왔다네
정조임금 서공은 경장각에 걸출하고
인종왕 목적은 학당에 어질구나
문장이 탁락하여 주자정자 계승했고
도덕이 융숭하니 공자맹자 이었다오
사방에서 시를 지어 등재를 축하하니
필암서원 아름다운 업적 만방에 전하리

경축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운

梧鳳 鄭得采

吾鄉筆院 慶和年	우리 고을 필암서원 경사의 해이고
登載文財 讚頌全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송이 온전했네
洙泗淵源 開後學	수사에 근원하여 후학을 열었고
洛閩緒統 繼前賢	주정학에 정통하여 전현을 이었네
修身省察 千秋度	수신 성찰은 천추에 법도이고
治國齊家 萬代連	치국제가는 만대를 이었네
懿蹟煌煌 追慕地	빛나고 빛나는 의적 추모하는 곳에
遺芳燦爛 永承傳	찬란한 향기유적 영구히 전하리라

誠齋 朴東申

筆巖聲價 漸高年 필암서원 평판이 점점 높아가게 되니
詳覽吾韓 面目全 우리나라 면목을 소상히 살펴보네
夫子窮經 宗古聖 공자님은 오경궁구 고성의 으뜸이 되고
河西講道 繼先賢 하서선생의 도학강론 선현을 계승했네
德齋晝夜 磋磨績 덕재에선 밤낮으로 절차탁마 계속되고
祠宇春秋 配享連 사당에선 봄가을로 시향이 이어지네
世界文化 遺產載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니
咸雍慶祝 萬邦傳 모두 기뻐 경축하며 만방에 전하리라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 전행사 열렸다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축전행사가 코로나로 미루어지다가 지난 10월 15일 규모를 축소하여 조촐하게 열렸다. 9시에 정채호 도집강이 우동사에 고유를 드린 후 11시에 장성문화원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최성복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김성수 문정공도유사가 경과보고를 하였고, 정채호 도장의 박병호 원장님의 기념사를 대신하였다. 이어서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의회 의장,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원래 김영록 도지사가 참석하기로 했으나, 코로나로 연기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50명에게만 문자로 알렸다. 참가자에게는 부채 1개와 문화상품권을 드렸다. 1주년을 기념하는 하서서예전 및 출판기념회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장성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고,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도록 1,000부도 발간하였다. 청절당에서 박래호 색장주관으로 경서강독과 성독회가 열렸다.

10월 23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에 신형철 광주향교 전 전교

코로나로 연기되어 오다가 10월 23일에 추향제가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22대 광주향교 전교를 역임했던 신형철 원로 유림,

아헌관에 양정태 서예협회 광주 전남지부장이, 종헌관에 심대섭 유림이 헌신하였다.

추향제를 모신 후 청절당에서 신형철 초헌관은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 국민은 물론이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불초 이 사람이 초헌관으로 참제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더 나은 세계유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여러 선비님들 앞에 다짐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제18회 하서 유적지 탐방 글짓기 시상식

제18회 하서 유적지 탐방 글짓기 시상식이 10월 23일 추향제 후 청절당에서 있었다. 금년 글짓기행사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적지 탐방을 할 수 없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 5학년생 36명을 추천받아 『하서 김인후선생 이야기』 책을 9월 1일 배부하여 9월 25일까지 독후감 36편을 제출받아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으뜸상에 분향초교 정효원, 버금상에 사창초교 금잔디, 장려상에 삼서초교 이지민, 중앙초교 고마음, 서삼초교 권영우 학생을 선발하였다. 으뜸상에 50만 원, 버금상에 30만 원, 장려상에 20만 원을 시상했다. 박병호 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수 도유사가 시상하고 참여 학생 31명에게도 참가패를 주었다.

장성군과 광산구 ‘서원문화 르네상스’ 연다

필암서원, 월봉서원 교류협약 체결, 콘텐츠개발 공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군이 광주 광산구와 협력해 ‘서원문화 르네상스’를 연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과 광산구는 지난 11월 6일 광주 월봉서원에서 ‘지역 전통관광 산업화를 위한 서원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서원 콘텐츠개발 및 학술교류, 관광 상품화 •지역 전통문화 관광산업 발굴 및 관광객 유치 협력 •지식 공유 및 창조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광산구와 함께 ‘서원 문화 발전과 세계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면서 “긴밀한 협조와 상호교류를 통해 서원문화의 르네상스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가치를 공인받은 필암서원을 통해 선비문화 세계화사업을 펼친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사업시행 3년 동안 서원스태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종합 기록관을 조성해 전남지역 서원의 기록을 보존 전시할 계획이다.

장성군, 필암서원 세계화에 3년간 100억 투입

**역사 문화체험, ‘서원스태이’ 추진
전남 서원기록물 보존 공간 조성**

장성군이 필암서원 세계화사업에 3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선정으로 군비 포함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서원에 머물며 역사와 문화가치를 체험하는 서원스태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근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유물전시관을 종합기록관으로 탈바꿈해 전남의 서원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요리교실과 전통공예 등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필암서원 세계화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1,0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필암서원이 전남 지역 서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불여장성의 전통이 서린 선비정신과 필암서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호 원장님, 추향에 300만 원 후원

지난 10월 23일 코로나로 뒤늦게 봉행된 필암서원 추향에 본 서원 박병호 원장님이 참례하지 못하시고 후원금 300만 원을 보내주셨다. 고령에도 출강하여 받은 강사료를 모아 후원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후원하여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본 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본 서원과 산양회원들은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동아꿈나무재단 김병건 이사장, 본회 명예회장 추대

본회 이사회에서는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준 동아꿈나무재단 김병건金炳健 이사장을 본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추대패를 증정하였다. 김병건 이사장은 세계유산 필암서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양회에 대한 후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인수 도유사 9년 동안 문중발전에 헌신하고 퇴임

2011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문정공도유사로 봉직하면서 필암서원이 2019년 7

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고, 필암서원의 자립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기금조성에 앞장서 3억여 원, 지역 내 문중 부조묘를 비롯하여 제실 등 13건의 보수비용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말끔하게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친 간의 애족과 화합에도 열성을 다하였다. 특히 하서학술재단 이사에 임명되어 서울 문중으로부터 지원과 협찬을 끌어오는 데 힘써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성수 문정공도유사 취임

2019년 12월에 문정공과 운영위원회에서 도유사로 추대된 김성수金盛洙 위원이 2020년 1월 문정공도유사로 취임하였다. 서울농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고향 장성에서 수의사로 활동하면서 축협장을 역임하였고, 문중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였다.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제행사, 필암서원 춘추향제, 선조묘소 시제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2020년도 산양회 정기총회 준비 이사회

2020년도 정기총회 준비 이사회가 지난 10월 31일 13시 '달정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 오다가 김재

수, 김장수, 김양수, 김용하 이사와 김승규, 고달석 감사, 그리고 김인수 전 도유사, 김성수 신입도유사가 참석한 가운데 뒤늦게 이날 이사회가 열린 것이다. 김재수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9년 동안 도유사로 헌신 해온 김인수 전 도유사의 인사말을 듣고, 김성수 신입도유사를 소개한 후 인사말을 들었다. 그간 경과보고를 듣고, 정기총회 준비, 초청강사 선정, 산양회보 34호 발간, 21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식사 후 바로 옆에 있는 산양회 사무실 겸 하서학당 공부방으로 쓸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김중채 회원님, 광주향교 전교 취임 축하

성균관 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중채金重采 본회 회원님이 광주향교 전교에 추대되어 취임하였다. 오래도록 임방울 국악진흥회장과 송재 서재필 기념사업회장으로 봉사해오셨기에 광주향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시리라 기대된다.

제34회 인촌상 시상식

한동대, 봉준호 감독, 차국헌 교수 상금 각 1억 원

인촌 김성수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4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8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

대를 설립한 민족지도자 인촌선생의 유지를 이어 나가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와 동아일보는 인촌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매년 시상식을 해왔다. 이날 수상자는 •한동대학교(교육) •봉준호 영화감독(언론 문화) •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과학 기술)로, 각각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안병영 인촌상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경위를 보고했고, 이용훈 이사장은 인촌상 수상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제29회 수당상에 김동호, 최해천, 이한구 교수 수상

수당재단은 9월 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9회 수당상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수상자로는 •기초과학 부문에 김동호 연세대 화학과 교수 •응용과학 부문에 최해천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인문 사회 부문에 이한구 경희대 미래문명원 석좌교수가 선정돼 이날 시상식에서 각각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상했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자인 고수당 김연수 선생의 산업보국과 인재육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상하 수당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김윤 삼양홀딩스회장이 대독한 뒤 경과보고, 수상자 소개 영상 상영, 소감발표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 추향제 성금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성명	직위 및 주소	금액
고광춘	장성군 청년유도회장	50,000	김용대	계파도유사	100,000
김성수	문정공 도유사	200,000	정창옥	황룡농협장	100,000
김문수	종친(필암)	200,000	김재훈	순창유사, 운영위원	100,000
김인수	문정공 전 도유사	200,000	영귀서원	곡성군 겸면 현정리	100,000
김양수	전 군수	100,000	김봉수	문화원장	50,000
변 원	봉암서원	50,000	조상명	농협군지부장	100,000
봉하옥	만곡사	50,000	고달석	산양회감사	100,000
김영풍	장성군 유도회장	50,000	김재수	광주종친회장	100,000
김영일	산림조합장	100,000	김상엽	서울 대종회사무총장	50,000
김재일	회암치사공파운영위원	100,000	김상준	서울 대종회부회장	50,000
양태호	소쇄원	300,000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3,000,000
심대섭	종현관	100,000	양정태	아현관	300,000
심대섭	양계사	50,000	김영수	태영전자 대표	1,000,000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100,000	김양수	여수 조경회사	500,000
김병기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재수	필암서원 산양회	500,000
합계			7,900,000		

2020필암서원세계유산등재 1주년축제 화환

- (재)하서학술재단 이사장 김상하
-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 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 도유사 김성수
- 울산김씨 계파도유사 김용대
- 울산김씨 광주종친회장 김재수
- 울산김씨 장파도유사 김관중
- 울산김씨 장성군 공직자회
- 필암서원 산양회 김재수
- 울산김씨 장성군종친회장 김을수
- 한국국악협회 장성군지부장
- 장성군 유도회장 김영풍
- 장성향교 문영수전교
- 장성축협장 차장근
- 장성문화원장 김봉수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 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 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곤 교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철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추향제 올리고 정운엽 초헌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
- 2017년 12월 4일 광주향교에서 17회 정기총회 후 조선대 이종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출처의리와 도학세계”란 주제로 강연
- 2018년 4월 5일 춘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정환담 학장이 “하서 사상의 사적맥락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강연
- 2018년 9월 22일 추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가 “유교에 대한 이해”란 논제로 강연
- 2019년 3월 21일 춘향제 올리고, 오세인 초헌관(전 광주교검장)이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의 역할” 강연.
- 2019년 7월 27일 집성관에서 김장수(동양문화학 회장) “서명사천도 연구를 위한 발제”, 탁현숙(조선대 교수)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 고찰” 강연
- 2019년 8월 17일 우등사에서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박병호 원장), 종가 부조묘에서 종손과 종친 고유제
- 2019년 9월 17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김동원(전북대학교 총장)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강연
- 2019년 10월 23일 세계유산등재 기념비 제막식 축제
- 2019년 12월 9일 집성관에서 전북대 김유곤 교수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후의 사천지학의 구조와 성격” 강연
김재수 “서명사천도에 대한 관건” 강연, 하서 도학과 문학 33호 발간
- 2020년 10월 15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전 행사 축소 거행
- 2020년 10월 23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에 신형철 전 광주향교 전교

중용 제25장 성자자성 誠者自成

성誠은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요, 도道는 스스로 길지어 나가는 것이다. 성誠은 물物의 끝과 시작이다. 성誠하지 못하면 물物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誠 해질려고 노력하는 것을 삶의 가장 귀한 덕으로 삼는다. 성誠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이룰 뿐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자기 밖의 모든 물物을 이루어 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다. 자기를 이룸을 인仁이라 하고, 나 이외의 사물을 이룸을 지知라 한다. 인仁과 지知는 인간의 성性이 축적하여 가는 탁월한 덕성이며, 인간존재의 외외와 내內를 포섭하고 융합하는 도道이다. 그러므로 성誠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지더라도 반드시 그 사물의 마땅함을 얻는다.

誠者自成也, 而道自道也.

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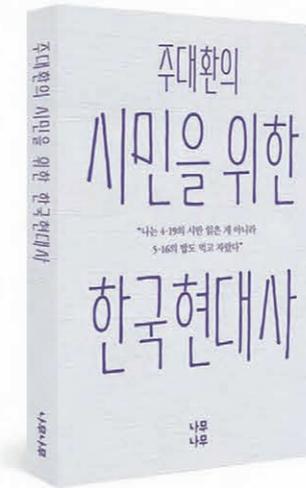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德也, 合外內之道也, 故時措之宜也.

- 도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302~303쪽.

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주대환 지음

역사교과서 논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자유로운 '한국현대사 읽기'. 좌우 진영으로 나뉜 편향적 사관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각. '평등은 대한민국의 유전자'라는 대담한 발상, 기존 역사논쟁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한민국 읽기'를 시작한다.

자유주의 사관과의 지적 대결,

다른 한 편으로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자유주의 사관이 가진 반역사성을 넘어서는 지적 대결. 다른 한 편으로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만들어낸 역사인식의 프레임을 걷어내는 작업.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열기에 간혀 있는 '민족주의 사관'을 해체한다. 이제 신화가 된 역사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작업.

50대에 이른 1964년생 386세대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이제야 한국을 어슴푸레 이해하기 시작했다. 광주의 '향연'에서 열흘 밤 동안 나는 이야기들을 모은 이 책에서, 나는 감히 '새로운 사관史觀'으로 대한민국의 70년 역사(1945년 해방부터 2015년까지)를 바라보고자 했다. 나는 이 사관에 '뉴레프트(new left) 사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